

“깨달음 없으니...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일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오행산에 갇히는 손오공

부처님이 내건 내기의 조건, 손오공이 보기에 참으로 달콤하다.

“내 손바닥만 벗어나 봐라! 옥황상제에게 집 비워 달라 해서 네게 주마!”

조그만 판잣집이 아니다. 하늘나라 통째로 준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내기에 지면 각오해라! 다시 요물 수준으로 떨어져 하계로 내려가야 한다.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나와 다시 내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까지 몇 겹은 고생해야 할 것이야!”

물론 손오공 귀에 이런 말이 들어올 리 없다.

“내 근두운 빠르기를 모르는 친구로군! 이 친구 옥황상제보다 낫잖아! 높은 거 같으니 단번에 내기에 이겨 천궁 접수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내기 시작! 부처님 손바닥을 내미신다. 연잎 같은 고운 손 내미신다. 서럽게도 고운 손 내미신다. 손오공 몸을 숙구쳐 그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하나 둘 셋! 손오공의 장한 근두운 술법~바람개비처럼 돌면서 심판 팔천 리를 나간다.



그림 · 최주원

한참을 달려가던 손오공 앞에 푸른 하늘을 떠받친 다섯 개의 삼색 기둥 등장!

“아! 이것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걸 보니 여기서 세상 끝이구나! 그렇다면 세상 끝까지 왔다가는 기쁨으로 표시를 해야지.”

가운데 기둥에 멋있게 휘갈긴다.

“제천대성 손오공, 이곳에 다녀가시다!”

그리고 개처럼 다리 한 짝 들고 영역표시까지~

“으~ 시원하다!”

그리고 다시 확~ 날아 돌아와 부처님 앞에 선다.

“나 하늘 끝까지 다녀왔다. 그러나 옥황상제에게 빨리 하늘나라 비우라 해라!”

부처님 슬쩍 웃으시며 손바닥을 내미신다. 그 가운데 손가락에 선명하게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글씨 “제천대성 이곳에서 풀값 떨다 가다!”

원숭이 오줌 냄새까지 진동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나, 이게 무슨 괴사나!”

놀란 손오공, 놀란 근두운 펼쳐 달아난다.

부처님 손바닥 뒤집어 한대 걸치신다.

그 한방에 완전히 K.O. 녀 다운! 하늘 밖으로 튕겨져 나가 하계로 쳐박힌다.

부처님 손가락을 화, 수, 목, 금, 토 오행(五行)의 산으로 바꾸어 그 아래 손오공을 완전히 눌러버린다. 아, 불쌍한 손오공. 돌에서 태어난 주체에, 원숭이 주체에, 신선의 장부에 이틀까지 울렸었던 한 때의 잘못된 생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쳤더니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단번에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혀 오행의 감옥에 갇혔네! 한 때의 영화 꿈만 같아라. 부처님 자비로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언제 나 이 감옥 벗어날까? 당나라 현장법사, 언제나 오시려는가?

잘 아시는 대목이죠?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뛰어

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 “지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지!”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가 그 출처지요. 그렇지만 늘 쓰면서도 사실은 그 출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모르는 이야기였던 셈이네요. 아무튼 손오공 열심히 근두운 타고 날았는데도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네요. 와~ 부처님 손바닥은 얼마나 넓기에! 심판 팔천 리 날아가는 근두운으로 한참 가도 못 벗어난단 말인가! 부처님의神通력은 광대하기도 하구나! 이렇게 감탄해야 하는 대목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부처님의神通력을 우리가 어찌 감히 엿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그神通력으로 손바닥을 좌악~ 눌러 퍼서..... 손오공 근두운보다 더 빨리 돌려 퍼서..... 손오공 날아가는 그 앞에 손가락을 툅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네요. 부처님 손이 마치 문어발처럼..... 으윽! 이걸 좀 불경스런 상상이군요.

그런 불경한 상상 하는 것 보다는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손오공은 애초에 무엇을 상징한 것이었던가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숭이처럼 나무대는 마음, 즉 마음 원숭이였거든요. 절에서 가끔 들으신 분도 있는 마음 원숭이에 여섯 창문(心猿六窓)이라는 비유에 나오는 원숭이죠. 그리고 좁게는 마음 가운데 지적(知的)인 측면을 가리키기도 하구요. 물론 깨달으면 지혜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리석음이기도 한 그 마음의 측면을 손오공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여기서 어떤 존재일까요? 부처님은 바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원래 뜻

오행은 세상 윤회를 의미 막강한 능력도 깨달음 넘지 못해 이타심과 자기 절제 강조

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지요? 붓다(Buddha)의 뜻은 ‘깨달은 이’이고, 이것이 우리말에서 부처가 되고, 거기에 존칭이 붙어 부처님이 된 것이라는 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상식! 여기서 손오공과 부처님을 대비하면 바로 앞에 이야기한 구도가 됩니다. 손오공은 무한한 가능성의 일부를 개발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무한한 마음의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한 존재, 깨달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진 힘을 조금 개발하여 제 절한 맛에 취해 있는 마음이 어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마음을 넘어서겠습니까? 그게 바로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조금 능력을 드러낸 마음과 완전히 깨달은 마음은 양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양적인 차이라면 어떻게 애를 써서 상대해 볼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질적인 차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에는 어찌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신(神)과 부처님 사이에 넘어서 수 없는 차원의 다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불교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죠?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등의 신 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고, 그리고 불교가 전파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믿어지고 있던 신들도 다 불교를 옹호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래서 절에 산신각도 있고, 용왕각도 있고, 어떤 절에는 칠성님 모신 전각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런 신들을 다 모시다 보면 부처님 지위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 신들과 부처님의 차이가神通력이 누가 더 높을까 하는 데 있다면 어찌될까 싶네요. “당신이 나보다 좀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판 붙어 볼만은 하지 않을까?” 하는 발칙(?)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앞 이야기에서 했지요?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위치에 가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없다고 말해야 하나요? 어디가 가장 높은 곳이다 싶으면, 바로 그 위가 있습니다. 수명이 역겹인 세상이 있으면, 역겹하고도 한 겹을 더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神通력이 이 정도면 최고다 싶으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神通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세계, 조금 더 높게!”를 추구하는 길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업보를 가지고 다루는 세상의 이야기이며, 바로 윤회의 세상 이야기이며, 우리 중생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들도 그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명과神通력을 가졌다 뿐이지 차원이 다른 존재는 아니란 말씀이죠.

부처님은 그런 세상에서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힘센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한 낫발을 다루는 세계를 벗어나신 분입니다. 윤회의 세상에서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훌륭한 지위를 차지하신 분이 아니라 온전히 그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신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우리와 분다 종자가 다른 분은 아니기에,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분과 같

은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한 차원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의 비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출중해도, 신과 같은 힘을 지녔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이 어찌 깨달은 온전한 마음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 손바닥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한 주제에 제 조그만 힘에 취해 날뛰던 마음 원숭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만났습니다. 그 동안 날뛰고 과보를 좀 받아야 하겠지요? 이제 인고의 세월을 좀 보내야 할 것 같군요. 그런데 그 인고의 세월은 오행의 산 아래에서 보내야 한대네요. 오행은 일주일에서 월, 화, 즉 해와 달을 뺀 것이죠. 화, 수, 목, 금, 토..... 즉 불과 물, 나무, 쇠, 흙이네요. 이 세상을 이루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중국의 고전인 서경(書經)에 처음 나온 것인데, 그 뒤로 주역(陰陽)에서 나오는 음양(陰陽) 사상과 결합하여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로 되었지요. 손오공이 그 오행산 아래 깔렸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플라톤이 말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손오공이 오행산 아래 깔린 것, 그것은 분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마음이 오행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제한 속에 갇힌 것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플라톤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죠. 영혼은 분다 이데아의 완전한 세계에 살아가게, 온전한 삶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삶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의 무대는 다르지만 비유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손오공은 이제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보통 큰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을 온통 뒤집어엎었으니, 하루 이를 감옥에서 보낸다고 벋을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 대목에서 웬지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흠~ 내 마음이 한번 힘쓰면 하늘 세상 뒤집어엎는 건 일도 아니란 말씀이여!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손오공이 하늘 뒤엎은 건 그런 비유가 되니까요. 그래도 죄는 죄대로 거는 거니까, 고생은 해야겠지요? 큰 힘을 올바른 데 써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가는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진실한 참회를 거쳐야 하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슬쩍 “죄를 다 벗는 날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으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희망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다르지요. 그래서 손오공이 희망에 찬 나날을 보내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목마를 때는 구리 컵물을 마시고, 배고르면 쇠구슬을 먹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먹고는 게 어디나, 손오공이니까 그 정도는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허긴 그것도 그렇군요.

서유기는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나쁜 짓한 과보를 받아 괴로움을 겪지만 선군은 끊이지 않았네. 언제나 부처님의 속박에서 벗어날까? 당나라 현장법사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리라!”

자, 그럼 우리도 다음 회를 기다려서 당나라 현장법사님 만나 뵈까요? 기다려 주세요.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투수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2월 16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11월 28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출발일: 12월 5일, 12월 12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10월 20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산/가산	6일	출발일: 10월 31일, 11월 21일	요금문의
(미안하)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출발일: 12월 2일, 12월 30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 출발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제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비나-스라바스티-산기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부버라-칸디

스리랑카 원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칸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칸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스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기르코트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리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 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리싸-정체-시가체-리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나기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전-마열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펜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권)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